+ 박세준 · TBS 뉴미디어국 기술3부

TBS 제2회 미니월드컵

개최 동기

2008년 12월 첫 전파를 쏘기 시작한 TBS eFM(101.3MHz)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방송국이다. eFM은 작년 제1회 미니월드컵 개최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 2010년 5월 29일, 30일 이틀간 능동 어린이 대공원 축구경기장에서 제2회 미니월드컵을 개최했다.

올해는 남아공을 비롯하여 총 17개국의 국내 거주 아마추어 축구팀들이 참가하여 각 국의 축구실력을 뽐냈다. 그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미니월드컵은 국내 거주 외국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한 외국인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많이 필요해요. 미니월드컵이 그것을 실현할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규모를 점차 늘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담당 프로듀서인 팀 알퍼(TIM ALPER)

작년에는 8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가한 데에 비해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7개 팀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2010 남아공월드컵'의 열기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니월드컵

이번 미니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들은 아일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러시아, 멕시코, 중국, 이태리, 카메룬, 모로코, 독일, 한국, 그리고 월드컵 개최국인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17개 국가로 29일 예선과 30일 본선경기로 진행되었다. 30일 경기에서는 4시부터 6시까지 결승전 2시간 동안 생중계가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에서 최초 아시아인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했던 제이슨 리(JASON LEE)와 eFM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터 빈트(PETER BINT)가 호스트를 맡고, 핌 베어백(PIM VERHEEK) 감독이 해설을 맡아 재미있고 알찬 방송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30일 9시부터 시작된 8강전은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구름만 끼는 날씨로 경기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소풍을 나온 가족단위의 사람들과 각자의 나라를 응원 나온 각국의 외국인들이 각자 다른 리듬, 다른 느낌의 응원전을 보여주어 또 다른 볼거리를 주었다.

박세준 · TBS 뉴미디어국 기술3부
+ TBS 제2회 미니월드컵

경기는 전반 20분, 5분 휴식, 후반 20분의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선 경기에서는 예선전에서 올라온 총 8팀이 결승을 놓고 경기를 펼쳤다. 이번 미니월드컵에는 선수층이 두터운 미국이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호주팀의 불참으로 예선에서 탈락했던 아일랜드 팀이 부전승으로 본선에 올라와 4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미국과의 결승전 끝에 3-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팀은 안타깝게도 8강전에서 패배해 월드컵 4강 신화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결승 경기 후에는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풋볼 프리스타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우희용씨의 기상천외한 무대가 펼쳐졌다. 우희용씨는 헤딩 오래하기 세계신기록 보유자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지뉴가 사인을 요청한 것으로 유명하다.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현란한 묘기에 매혹되는 것도 잠시, 힐턴 데니스 남아공 대사가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건네고 간단한 폐회인사를 하는 것으로 제2회 미니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마무리

라디오 중계는 TV중계에 비해 간소하지만 방송을 준비하는 마음, 최고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절대 간소하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을 주요 청취자로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의무감만큼 부족함도 느끼는 방송이었다.

올해는 남아공월드컵이 열리는 해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미니월드컵이지만, 이와 같은 열기가 앞으로 계속되고 우리 방송이 세계화와 다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